

박정희, 그 광기와 야만의 역사를 넘어서

출판환경이 박정희의 부활에 일조... 미화일변도 책들에 역사적 검증 요구

조현연

한국정치연구회 연구위원 · 정치학

올해는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지 50주년이자 분단정권 수립 50주기이기도 하다. 돌이켜볼 때 한국현대사는 한마디로 광기와 야만으로 가득찬 역사였다. 박정희 시대도 여기서 예외는 아니었으며, 오히려 그 왜곡된 역사를 조장하는 데 박정희의 역할이 그 누구보다도 크다고 할 수 있다. 사실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절망의 정치와 희망 부재의 사회상황에서 '박정희 신드롬'의 광풍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는 실정이다. 15대 대통령 선거에서 대부분의 대권주자들이 보여준 박정희 추앙의 불이나 얼마 전 대구 달성의 보궐선거에서 '박정희나 김대중이나' 라면서 망국병인 지역감정을 부추긴 후보의 압승은, 죽은 박정희가 살아 있는 사람들의 삶을 규정하는 하나의 예에 불과하다.

죽은 박정희가 '산' 사람들의 삶 규정

박정희의 부활에 출판환경이 일조하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인간의 길》 1·2권, 《실록 박정희와 김종필》·《아, 박정희》·《왕과 건달》 등은 그 예고편(《출판저널》 제217호 참조)이었으며, 아류인 후속편들이 계속 쏟아져나오고 있다. 얼마전 선보인 《선글라스와 목련꽃》(태일)은 박정희를, 가난과 고통의 둔덕에서 허덕이던 그 시절 우리에게 '하면 된다'는 자신감을 일깨워줬고 그 바탕 위에서 경제건설의 탑을 쌓아 수천년 대물림해왔던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해준 전설의 카리스마로 부각시킨다. 나아가 '이 땅에서 가장 아름다운 영부인'이었던 육영수와의, '청와대 속 깊이 감춰져 있던 재미있고 감동적인' 아사를 통해 독자들의 심금을 울리고자 애쓰고 있기도 하다. 또 《청년 박정희》(리브로)에서는 한국현대사에 강렬한 빛과 그림자를 던진 최고권력자의 젊은 시절, 박정희는 무엇을 보았고 무엇을 꿈꾸었으며 어떻게 행동했는가를 이룬다. 화려한 화폭에 그리고자 한다.

한편 《박정희의 눈물》(동광)은 전세계적으로 한국의 기적이라고 불렀던 한국의 경제적 성공은 박정희가 조국에 바친 최대의 선물이라고 말한다. 나아가 저자는 한결같이 조국을 사랑하고 조국의 발전을 염원하는 박정희가 오늘도 국립묘지 밑에서 지상을

올려다보며 끊임없이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하면서, 그의 몸부림이 저자로 하여금 책을 쓰게 했다고 말하고 있기도 하다. 《영웅 박정희》(인화)에서 박정희는 험난했던 세상에 굴복하지 않고 의연하게 이 민족을 18년간 이끌어간 초인의 위대한 힘을 통해 역사 속에 현상한다. 저자에 따르면 세계 최하위에 머물던 열등한 대한민국을 선진국가로 부상시켜 세계를 놀라게 만든 것이야말로 초인으로서 박정희의 업적이자 영웅이 아니어서는 결코 이룰 수 없는 것이라고 한다. 한편 참혹한 가난과 전쟁의 폐허, 권력을 향한 음모와 욕망이 소용돌이치는 거대한 역사를 딛고 일어난 박정희의 신화는 《인간의 길》 3권으로 일단락을 맺었다.

위에서 인용한 책들의 장광설 가운데 필자가 부분적으로 동의하는 것이 전혀 없지는 않다. 그러나 이 모든 책들에서 내가 읽은 핵심을 요약한다면 한마디로 그것은 '역사의식의 빈곤'이라고 할 수 있다. 인권을 유린하고 민주를 억압한 벌거벗은 폭력과 공포의 독재정치가 오히려 경제발전에 도움이 됐으며, 또 그것은 가난을 떨치기 위해 시대적으로 불가피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말문이 막힐 지경이다. 만약 박정희 추앙의 열기가 오늘날의 총체적 위기와 혼돈의 상황에 편승하여 '베시아' 대망론으로 이어지면서, 구시대적 영웅사관의 부활과 파시스트 재출현의 토양이 된다면 이 나라는 어떻게 될 것인가? 참으로 생각하기조차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물론 박정희의 유령이 공공연히 출몰하고 또 그를 그리워하게 만든 것이 희망을 잃어버린 오늘의 고단한 삶이라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뒤집어보면 이것은 일종의 집단적 광기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박정희가 정오의 태양처럼 작열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삶이 오늘의 지점에 이르게 된 그 근원을 바로보지 못하는 역사에 대한 총체적 무의식성에서 비롯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모든 부조리와 부정, 위기의 진원지는 박정희와 그 시대로부터 연유한다는 사실이 이를 웅변한다. 또한 박정희 시대 내내 자행된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훼손과 그로 인한 인간성의 실추, 그리고 목적을 위해서라면 어떤 수단도 정당화

절망의 시대에 희망의 부활은 절실하다. 그러나 그것이 역사적 부정성의 상징인 박정희를 구국의 영웅으로 미화하는 차원으로 나타내거나 그 시대에 대한 맹목적 향수로 소생하는 것이어서는 결코 안될 것이다.

최근의 출판환경이 박정희의 부활에 일조하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다.



될 수 있다는 전도된 윤리관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이러한 망령의 부활에는 그로부터 반사이익을 얻으려는 특정 세력의 교묘한 부추김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 박정희와 그 시대에 대한 향수는 개발독재의 단맛을 독점해온 사회 곳곳의 반동적 보수세력과 특히 그들과 결탁된 보수언론의 농간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이다.

희망 잃은 시대를 떠도는 박정희의 유령

문제는 일반국민들에게까지 이 터무니없는 예찬이 먹혀들어가면서 맹목적인 향수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사실이다. 지금 대학생들에게서 19년 전에 죽은 박정희에 대한 역사적 분노나 공동체적 증오를 기대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바로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수혜자들에 의해 이뤄지고 있는 박정희에 대한 미화와 동정과 사랑을 유도하는 증언과 출판물의 홍수에 대해 엄밀한 역사적 검증이 이루어질 절박한 필요가 있는 것이다. 박정희의 부활은 이성의 파괴이자 우상의 신봉임에 다름나기 때문이다.

바로 이러한 때에 한국의 책이 나와 세간의 관심을 소리없이 집중시키고 있다. 열명의 소장 연구자들이 공동저술한 《박정희를 넘어서》(푸른숲)는 앞의 찬양 일변도의 글

이 담고 있는 음험한 눈초리를 낱알이 밝히기 위해 비판의 칼날을 들이댄 최초의 본격적인 연구서라 할 수 있다.

'왜 다시 파시스트를 노래하는가'라는 머리말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책은 반동적 보수의 속셈대로 박정희를 살리려고 역사를 죽일 수 없다는 반성적 성찰에서 출발한다. 10여개에 달하는 각 꼭지들에는 시대착오적인 역사뒤집기 현상의 극복을 통해 역사적 진실을 복원하기 위한 이론적, 실천적 도전의식이 짙게 배어 있으며, 또 그것은 박정희 시대를 눈물과 땀으로 살았던 사람들에게 대한 최소한의 관심과 예의의 산물이기도 하다.

역사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는, 즉 역사건망증이 심한 민족은 과거의 실패를 되풀이한다는 말이 있다. 심리적 공황이 급기야 자살의 일상화로 나타날지도 모른다는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고 있는 절망의 시대, 희망의 부활은 무엇보다 절실하다. 그러나 그것이 역사적 부정성의 상징인 박정희를 구국의 영웅으로 미화하는 차원으로 나타내거나, 그 시대에 대한 맹목적 향수로 소생하는 것이어서는 결코 안될 것이다. 우리 시대 희망찾기의 첫걸음은 무엇보다 박정희와 그 상징적 깃발을 비판적으로 극복하는 데서부터 찾아질 수 있을 것이다. ❖